

상조(相助)



고대문자중에 라는 문자는 私(개인) 라는 뜻을 가진 문자 이다. 私라는 속뜻에 는 간(監)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원래 남자가 여자쪽으로 혼인하여 가서 처가의 자매에 의해서 私라고 불리웠다는 학설 이 있다. 또한 私라는 글이로 중형상 위자(衆相相親之詞)라고 옛날 사람 들은 규정하였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생각을 해보면서, 여 씨혼후에 나오는 치천 하당무사(治天下當無 私)란 말의 가치를 음 미해 본다. 그리고 사 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행동규 범을 분석해 본다.

인연가 노 전대통령은 흐르는 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예기결로 기억 된다. 정암로 불처림 살았던 것 같다. 그러나 거기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은 자유롭게 모습을 바꾸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어느누구와 다투려 하지 않고 점점 커 저기면서 거대한 힘을 갖춘 다. 이렇게 흘러가는 물의 철학을 노태우씨는 품소 실 천하였던 것이 그만 '물태 우'가 되어버린 형국이 벌 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데 개인이 우월해지니...

운명을 타고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다. 서로 본다는 뜻으로 '관'의 고대문자는 '로'로 표시되어 있던 것인데 요즘엔 私(개인)가 너무 우월해져 가면서 문제가 심각해 지지 않나 생각해본다. 스스로 자신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시절이라서 그런지 무심결에 그려본 그림이 상조란 그림이다. 늘 인간의 근원과 생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작품주제로 삼고 있는 나는 작곡의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관한

이리고 말았던 것이다. 일찍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흐 르는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정지한 물에 비추어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보라'라고 노자는 설과 한것이 그 유 명한 명경지수(明鏡止水)란 명언이 아닌가! 웬지 자꾸만 허탈해지는 요즘, 비자 금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완성된 상조 라는 작품을 보면서 새롭게 생성될 그 무엇에 기대를 하여본다. 박오서 (화가)

인연

주부신행담

나는 결혼과 더불어 불교와 인 연을 맺게 되었다. 중학교 다닐 때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간 적이 있다. 그러나 얼마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결혼과 더불어 남편과 시댁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집에 다니게 되면서 마치 어머니의 종 과도 같은 따스함을 느끼고 있다. 도란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인자하 신 웃음이 반겨준다. 부처님을 우 러러 삼배하고 나면 마음이 포근 히 가라앉는다. 더없이 편안해 지 는 것이다.

나는 33세라는 늦은 나이에 중 배로 동갑인 남편(이상반 대한불 교청년회 중앙회장)과 결혼을 했 다. 남편은 첫부인과는 사별했다. 첫부인과는 사이에는 아들 '동업' 이를 두었다. 결혼을 하고보니 집 은 전세집이었고 4대 7명이 한테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다. 남편은 중가집 중손으로 시부모님과 88세 의 시할머니 그리고 자식은 결혼 한 시동생 무명과 아들이 있었다. 시동생은 졸업할 앞두고 있었고 남편은 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지 금도 그렇지만 집안생활은 나 플라라 하면서 오로지 불교활동만 하는 사람이었다.

신혼여행을 다녀올과 동시에 나 는 한 자식의 업이 되었다. 처음 보는 순간 동업이가 나를 얼마나

말이 달았는지 경이로움을 느꼈 다. 나는 동업이를 개인으로 내 친 자식처럼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 겠다고 다짐에 또 다짐을 했다. 10 년이 지난 지금 동업이는 나를 친 엄마처럼 따르며 밭도 갈고 콩도 부도 잘 한다.

남편은 대불장 회장 외에도 대 한불행 대구지부장을 2회 역임했 고 보현사 청년회장을 3번 역임하 는 등 불교청년운동에 일생을 바 쳤고 앞으로도 바뀔 사람이다. 불 청운동으로 전국 곳곳을 다니느라 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

다. 결혼 후 10년동안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다. 월급은 용방 불 교청년활동에 쏟아내는 것이다. 사실 월급 문제로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다. 빈 봉투를 보니 눈앞이 캄캄해 돈을 왜 안가져 오느냐고

도 서부사 어린이회 출신으로 사 람에 열심히 나간다. 이분들의 독특한 불심이 나를 불교로 이끌었고 불보살님의 기피 로 자담까지 별말 없이 결혼생활 과 직장생활을 해 올 수 있었다고 여긴다.

아무튼 남편이 월급을 집에 가 저오지 못하자 나는 결혼 초부터 어쩔 수 없이 직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인쇄소를 시작했다. 처음에 는 청타를 했다. 운영이 어려웠지 만 악착같이 노력했다. 부처님의 기피인지 그다지 큰 곤란없이 인쇄 소 일이 잘 풀려 나갔다. 컴퓨터 가 본격화되면서 컴퓨터를 도 입했다. 잘 팔 때는 직원을 3명까 지 두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불경기가 심해 나 혼자서 하고 있다.

살림하라, 인쇄소 운영하라 나 자신도 바쁘고 남편은 불교활동에 바빠 한집에 살기도 서로 얼굴 보 기도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러자 외 의가 생겼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 라고 했는데 남편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활해도 되는가 하는 의 문이 든 것이다. 남편이 꼭 빠져있 는 '불교'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겠다는 이른바 '발심(發心)'이 내 게 슬그머니 들었다.

허위 화 (대구시 북구 관음동)

10년동안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없었다 나는 남편이 빠져있는 불교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겠다는 '발심'이 섰다



싸움도 하고 바가지도 꺾고 했지 만 남편의 굳건한 신념에 그만 손 을 놓고 말았다. 남편은 매주 1~2 일은 꼭 보현사에서 철야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며 자신을 돌아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집은 88세 되시는 시할머니 를 비롯 시어머니 어머님 그리고 아홉까지 모두 똑같은 불교신자이 다. 1백세를 눈 앞에 둔 시할머니 은 손에서 열주를 놓은 적이 없다. 언제나 손으로 돌리며 관음보살을 염한다. 비교적 건강하고 정정 하신 것이 부처님의 돌보심이라고 늘 감사해 하신다. 시어머니 역시 새벽에 일어나시면 열불과 기도를 빼뜨리지 않으신다. 아들 동업이

◆ Thou professest to be a ploughman, and yet we do not see thy ploughing; asked about (thy) ploughing, tell us (of it), that we may know thy ploughing. 수행자여 그대는 농부라고 자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 밭가는 것을 보지 못했나니, 당신이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 오.

◆ Bhagavat answered: Faith is the seed, penance the rain, understanding my yoke and plough, modestly the pole of the plough, mind the tie, thoughtfulness my ploughshare and good. 스승이 대답했다. 내에게는 신 앙이 씨앗이요, 고행은 비다. 그리 고 지혜는 내 밭이며 경기도, 잘 뜻을 반성하는 마음이 그 경기의

자루다. 또 굳은 마음은 경기를 때 는 밧줄이요, 매사에 생각이 깊 은 것은 경기의 보습이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 I am guarded in respect of the body, I am guarded in respect of speech, temperate in food; I

make truth to cut away (weeds), tenderness is my deliverance.

몸을 삼가고, 말을 삼가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말없이 진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를 땅에서 떼어놓는 일이다.

◆ Exertion is my beast of burden; carrying (me) to Nibbana he goes without turning back to the place where having

gone one does not grieve.

노력하는 것이 내 밭을 맨 소 이며, 이 소가 마침내는 니르바나 의 저 언덕으로 나를 데리고 간 다. 풀러서지 않고 곧게 나아가서 니르바나, 저 언덕에 이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은 더이상 없게 된다. 'Thoughtfulness' 사려깊음. 'respect' 존경, 존중하다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 침대 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만능침대를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꺼운 매트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바장2리 180-18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불자주식공모안내

불교TV 주주불자님께는 이렇게 보답드립니다.

불교TV 주식공모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께는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배당은 물론, 앞으로 불교TV에서 개최하는 교양대학, 문화교과, 국내외 성지순례 등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며 각종 방송의 심파출물도 열거에 보급해드릴 예정입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불사 지금이야말로 불자님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개 국한지 열달도 안된 지금 불교텔레비전은 이미 43만여 가구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종교방송들에 비해 훨씬 높은 시청율을 기록하고 있는 등 그 발전과 활약상이 눈부십니다. 풍부한 불교문화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초기의 투자제원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불교텔레비전이 펼쳐나갈 미래는 끝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초기에는 경영여건이 어렵기 마련입니다만, 불교텔레비전의 경우 케이블TV 가입시청 가구수 100만에 이르는 96년말까지 고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불자님들의 성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이 원력불사에 많은 분들이 주인으로 동참하셔서 선근공덕 지어주시기를 두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불교TV 주식 청약 안내

- 청약기간: 1995년 12월 1일 - 1996년 2월 28일(90일간)
청약지문용지교부처: 전국 사찰, 불교단체, 불교텔레비전 본사 및 부산지사
청약한도: 1인 20주(10만원) 이상
청약요령: 교부받은 지문용지에 기재사항을 철저히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신 후, 은행이나 농 수 축협외 99번 지교청구에 납입금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불교TV본사: (02) 3270-3476~9 부산지사: (051) 645-5114

불교텔레비전

본 사 서울 비포구 마포동 418번지(근호장7단지)
전화: (02)3270-3300 팩스: 3270-3498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명빌딩)
전화: (051) 645-5114 팩스: 631-1772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定岳 泰應 합장